

직장인 일상회화 완전정복 1단계

- 영어가 쉬워지는 회화 기초패턴편

Script

리스닝 인트로

문제를 듣고 가장 적절한 답을 고르세요.

- What would you like for lunch?
- A. I prefer lunch to breakfast.
B. I like noodles.
C. I would like to read some books.

] 점심으로 뭘 드시겠어요?

- A. 저는 아침보다 점심을 선호합니다.
B. 저는 우동이 좋아요.
C. 저는 책을 좀 읽고 싶어요.

[이 과의 학습목표]

1. What would you like + for (to) 의 문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.
2. 오늘의 문장: "What would you like for lunch?"

강의 보기 - Main Dialogue

Young: Time to have lunch! Would you like to join us?

Young: 점심시간이다! 같이 가실래요?

Lisa: Sure. I'd love to.

Lisa: 물론이죠. 그리고 싶어요.

Young: What would you like for lunch?

Young: 점심으로 뭐 드시고 싶으세요?

Lisa: I'm not picky on food.

Lisa: 전 음식 안가려요.

강의 보기 - Small Talk

☞ 일을 하다가 갑자기 따뜻한 음료가 생각이 난다. 내 맘을 어떻게 알았는지 옆에 있던 동료가 따뜻하게도 이렇게 물어준다.

Dialogue - 1

Lisa: What would you like to drink, coffee or tea?

(Lisa 커피나 차 하시겠어요?)

Young: Coffee, please.

(Young: 커피로 부탁드립니다~)

☞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외식을 하기 위해 가까운 레스토랑에 갔다. 아주 멋지게 차려 입은 정장차림의 웨이터가 다가와서 주문을 받는다. 그런데 Young은 아는 음식 이름이 별로 없는 모양이다.

Dialogue - 2

Lisa: What would you like to order?

(Lisa: 뭐로 주문하시겠습니까?)

Young: I'd like to have this one, number 16.

(Young: 이거 16번으로 하겠습니다.)

☞ 외식도 했겠다 마음이 좋은 Young 부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백화점에 들러서 옷을 사고 있다. Young이 맘에 드는 옷을 집어서 거울 앞에서 한번 입어보며 미소를 짓자 점원이 다가와서 말을 건넨다.

Dialogue - 3

Lisa: What size would you like?

(Lisa: 어떤 치수를 원하세요?)

Young: Large, please.

(Young: 라지요.)

One more Tip!

영어의 존댓말

영어에도 존댓말 있습니다!

존댓말 쓰기 어려우시면 3가지 'Magic Words' 만 기억해 두세요.

당신을 예의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'Three Magic Words!'

1. I'm sorry. : 죄송합니다.
2. Please. : 제발~~ 해 주세요.
3. Thank you. : 감사합니다.